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한양대박물관 세미나실에서는**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최로 '가족, 영화애 빠진날' 행사가 10월 25일 열린다. 이번 주에는 '미스 리틀 선사인'을 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제 관람권을 소지하고 찾으려면 기념품이 증정된다. (02)3395-9447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놀면서 배우는 쉽고 재미있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과학연구공연, 실험체험마당, 과학완구전시, 놀이기구 탑승 등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시간은 10월 28일 10시부터이며 부대행사로는 사이언스 매직쇼 등도 마련된다. (02)3677-0892

**인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체험, 인체의 신비전'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11월 11일까지 계속되며, 제3, 4전시실을 이용해 다양한 인체 작용을 실제 인체 모델을 통해 볼 수 있어 생생한 전시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031)461-3838

**수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한아름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마당을 나온 암탉' 원화사진 전시 및 황선미 작가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는 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10월 23-31일 원화사진 20여 점, 황선미 작가 동화책 등이 전시된다. (031)218-0400

**부산 해군 제3함대사령부에서는**  
10월 24-27일 최신에 해군 구축함 등 4척을 공개한다. 이 행사에는 누구나 견학가 가능하며 특히 해군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 제3함대사령부 행정과(051-679-4120)로 문의하면 된다.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점토로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해 볼 거예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만들어요."

10월 13일 서울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진정순). 어린·청소년·어린이가 각각 섞여 6모듬을 만들었다. 각 모듬 앞에 놓여진 것은 갖가지 색깔의 점토와 스티로폼 판, 이쑤시개, 인형 눈알 등의 만들기 도구들이다. 벌써 점토 봉지를 뜯고 반죽에 열심인 아이들이 눈에 띈다.

어렸을 적, 점토로 무엇인가 만드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말랑말랑한 촉감과 내 마음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점토의 특성 때문이다.

그런 점토를 조금씩 변형시켜가며 만드는 것이 '클레이애니메이션'이다. 용어는 다소 생소한 듯 해도 우리는 꽤 많은 클레이애니메이션을 접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크리스마스의 악몽', '월레스와 그로밋', '치킨 런' 등이 바로 클레이애니메이션 작품들이다. 이날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모인 아이들의 활동이 이런 클레이애니메이션의 기본을 체험해 보는 것이었다.

한 모듬마다 구성원들의 역할이 있다. 먼저 어린이. 역시 어린이가 맡은 부분은 상상력이다. 이들의 어디로 뿔지 모르는

# 점토인형이 막~ 움직여요

역삼청소년수련관 클레이봉사단 활동



생각은 창작 활동에서 빛난다. 어떤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인지, 캐릭터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마구 쏟아 내는 아이디어에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외친다.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진짜 웃길 거예요." 다음은 청소년. 이들이야말로 '중심'이다. 어린이들의 못 말리는 상상력에 약간의 '태를'을 걸면서 조율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게다가 점토 만들기에도, 촬영에도, 이야기 만들기에도 신경 써야 하는 이들이 청소년이다.

그리고 어른. 여기서 어른의 역할은 큰 방향 잡아주기다. 애니메이션 제작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인 촬영도 담당한다. 아이들 뒤처져도 어른의 몫이다.

이날 모인 청소년과 어른 20여명은 사실 '클레이봉사단' 소속이다. 그리고 어

린들은 인근 복지관 방과후 교실 아이들로 대부분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고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더러 있다. 집점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클레이봉사단은 3개월 전부터 수련관에서 클레이애니메이션 제작 교육을 받아왔다. 이들은 방과후 교실 아이들과 함께 클레이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제작과정을 습득해 온 것이다.

아버지의 권유로 클레이봉사단에 참여했다는 선하(18)는 중국 유학을 다녀와서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이다. 선하는 클레이봉사단 활동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혹시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너무 밝고 귀여워요.

애를 만나면서 봉사활동은 시간 때문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기도 하죠."

청소년들과 어린이 사이에는 별다른 접합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끼리 모여도 서로의 공감대만 찾으면 충분히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이날 참여한 아이들의 생각이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것도, 장애를 가졌는가 아닌가의 문제도 함께 어울리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 것이다.

클레이애니메이션 점토 인형만들기를 지켜보던 아이들에게 어떤 캐릭터가 인기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특히 '스폰지 밥'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역삼수련 모듬에 노란 스폰지 모양이라 만들기도 수월한 편이다.



어떤 모듬에서는 스폰지 밥, 플라맨, 거대토끼, 보노보노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6명이 모여 상어를 잡아 사이좋게 구워먹는 스토리가 전개되기도 했다. 또 한 모듬은 얼마 전 인기리에 상영됐던 '다워'의 이무기를 재현해 내기도 했다. 이무기와 생쥐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마도 아이들의 상상력 안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만들고 촬영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클레이애니메이션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장면을 찍고 점토 인형을 움직이고, 다시 한 장면을 찍고 점토를 움직여 수십 장이 모여야 30초-1분짜리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

힘들고 지칠 법도 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점토 인형이 카메라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된 것인 양 움직이고 날아다니는 것을 보며 클레이봉사단과 아이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이날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어른이 함께 만들어진 클레이애니메이션 속에 사는 서로의 마음 속 따뜻함이 녹아들었다. 모두 친구가 되고, 싸우다가도 금세 화해하는 캐릭터들을 창조해 낸 사람들이 만들어 나갈 세상, 기대해 볼직하다.

글·사진=김경진기자

##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과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받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령보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처님께 들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산 분, 사업을 하고 계산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산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의 특별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자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사중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라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 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悲神力)의 신통한 중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령"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사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방지갑65,000원 여성용방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다쳐서 화를 미리 쫓고 생명을 보호하는 영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축원불공마친 비방!!**

안전운행의 선물!      평생보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 거울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은사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은사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다쳐서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하며, 법적인 관재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품위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38,000원  
전화 : (02)741-4477